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 헌납



△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 모습과 그 앞에 운집한 성도들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이 유타 주 중앙에 있는 3500미터 높이의 팀파노고스 산 기슭에 건립되어 지난 10월 13일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13일 오전 9시 첫번째 헌납 의식이 집행되었고 그에 앞서 8시에는 성전의 모퉁이돌을 놓는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헌납 의식은 13일부터 19일까지 평일은 4회, 안식일은 3회 총 27회에 걸쳐 이어졌다.

13일 이른 새벽부터 모퉁이돌을 놓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운집하여 성전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오전 8시 모퉁이돌을 놓는 의식을 위해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 부부와 성전장 부부가 성전 밖으로 나와 성전 건물 남동쪽 모퉁이로 나올 때,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 관할 44개 스테이크에서 각각 20명씩 선발하여 88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합창

단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고, 마침 팀파노고스 산너머로 떠오르는 태양 아래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힙클리 대관장이 모퉁이돌을 놓는 장면을 지켜 보았다.

힙클리 대관장은 몇명의 어린이들을 불러서 함께 모퉁이 돌을 놓았는데, 하루전에 준비되어 밀봉된 가로 50cm, 세로 75cm의 모퉁이 돌 상자에는 최근에 발행된 표준 경전, 힙클리 대관장의 저서 2권, 총관리 역원과 성전장단의 사진, 성전 안내 책자, 교회 공보 자료, 성전에 관해 보도한 신문 스크랩 등이 포함되었다. 의식을 마치고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합창단이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합창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서 베풀어진 첫번째 헌납 의식에는 11,617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는데 성전 안에는 2900명 만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성전 헌납식에 참여했다. 성전 외의 다른 건물에서 베풀어진 의식에도 각자의 감독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성도들에게만 입장이 허용되었다. 헌납식 첫날 38,000명이 헌납 의식에 참여했으며 첫번째 헌납 의식에서 행해진 힙클리 대관장의 헌납 기도문이 이어진 26회의 헌납 의식에서도 낭독되었다.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의 건립은 1992년 10월 3일 힙클리 대관장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1993년 10월 9일 기공식이 거행되었으며, 헌납식에 앞서 8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행해진 일반 공개에는 총 679,217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관람했다.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 헌납은 그 지역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훌륭한 계기를 맞게 해 주었으며, 헌납 의식은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감동의 눈물을 감출 수 없게 한 사건이었다. □

제166차 반연차 대회 성료

모든 대륙과 대양 너머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따르는 수천 명의 말일성도들은 지난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에 모여 제166차 반연차 대회에 참석했다. 약 20도를 웃도는 온화한 날씨 가운데 치러진 이번 연차 대회에서는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 건물과 어셈블리 홀 및 길 건너 요셉 스미스 기념관을 가득 메우고도 템플 스퀘어 내 잔디밭에 수천 명의 청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회 실황을 경청했다.

“모든 대륙과 대양 너머로 나아갑시다!”라는 새로운 주제로 대회를 시작하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여러분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고무되고 영감 받으며, 높이 들리고 인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와 다른 총관리 직원들은 성전의 다락방에 모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영감과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대회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지시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고,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주며, 그들의 모든 문제와 필요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성령의 권세로써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고하였다.

힝클리 대관장은 일요일 저녁 모임을 마치면서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대회의 모든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말씀으로 개인적인 감화를 받아 우리의 옳지 못했던 자세와 행동에서 돌아서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다.

이번 대회는 힝클리 대관장과 그의 두보좌가 토요일의 두 모임과 안식일의 두 모임 및 토요일 저녁의 신권 대회 등 모두 다섯 차례의 모임을 교대로 사회하였고, 22명의 총관리 직원과 두 명의 본부 역원이 29회에 걸쳐 속죄, 성신의 은사, 신권, 결혼과 가족, 가정과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선교 사업, 개인적인 가치, 의로운 소망의 계발 등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대회 말씀은 즉시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하이티어, 호모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라오스어, 광둥어, 나바호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

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역되었으며, 대회 실황은 솔트레이크의 채널 5로 생중계되었고, 미국 전역에는 위성을 통하여 1200개 유선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고, 영국, 스페인, 독일, 중국,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에서는 개인 위성 수신 장치를 활용하여 대회 실황을 시청할 수 있었다. 영국, 아이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스위스 등에 있는 100개 이상의 스테이크 센터와 와드에서는 자체 위성 수신 장치를 활용하여 교회에 모여 대회 실황을 시청했다. 위성으로 대회 실황을 볼 수 없었던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는 대회 실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제공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열 세 탕기 장로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 카를로스 이 에이시 장로가 명예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되었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물런 지 크레이븐 장로,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장로, 한인상 장로,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 조셉 시 무른 장로,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 호르헤 에이 로하스 장로, 샘 케이 시마 부꾸로 장로가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직에서 해임되었다. □

한인상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

10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166차 반연차 대회에서 한인상 장로가 다른 8명의 장로들과 함께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되었다. 한 장로를 비롯해 이번에 해임된 장로들은 모두 지난 1991년 칠십인 정원회에 부름 받았었다.

1939년생인 한 장로는 1957년에 침례 받았으며, 지난 1991년 최초의 한국인 총관리 직원으로 부름 받았었다. 그는 최초의 한국

인 복음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국인 선교부장(부산 선교부), 최초의 지역 대표로 봉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한 바 있다.

한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에 부름 받기 전, 교회의 한국 관리 본부 대표로 재직 중이었으며, 그 전에는 한국 번역 출판부 관리자 및 번역 책임자로도 일했으며,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물문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서울 성전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으며, 이규인 자매와 사이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

우리가 이 위대하고

성스러운 대회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고 우리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회 개막 연설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관 주인의 탄식”

한 인 상(서울 정전장)



중파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왕국 교리의 주요 원칙에서는 서로 주장을 달리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나셨느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그야말로 온 세상이 특별한 경축 행사를 갖습니다.

시인 에드가 에이 게스트는 ‘사관 주인의 탄식’이라는 아홉 절로 된 시를 적어, 모르고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하여 마굿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한 사관 주인의 아픈 뉘우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들도 곧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탄식을 그때의 그 사관 주인처럼 토해 낼 것입니다.

여기 그 게스트의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사관 주인은 탄식한다.
전혀 누구인지 몰라서
안으로 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 머리 위로 별이 빛났어도
내겐 하늘의 정조를 읽을 재간도 없었고
더구나 사관의 방들을
이미 부자, 권세자들이 다 차지했던걸.

말없이 옆에선 남자가
그 여자는 초라하기 이룰데 없고

그때 그 고객들은 모두 죽었거나

그때의 일들을 다 잊었지만,

오늘, 온 세상은 내가 쫓아낸

그분이 평화로 인도하고 계시다.

방은 정말 다 나간 뒤라
나 그들에게 다른 곳에 가 보라고 했던것.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데다
그녀가 너무 지쳐 보이기도 했고
두 사람이 하도 간청을 해서,
다만 그녀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
그들을 마굿간에 들게 한거다.

그들을 방에 들이기 위해
부자 고객들을 내 몰면,
베들레헴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방금 태어난 왕을 뵈러 왔으며
박사 세 사람이.

물약과 값진 유향과 황금을 갖고
형편없는 싸늘한 마굿간으로 찾아 왔는데,
엄청난 광채가 그녀를 비치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 고객들은 모두 죽었거나
그때의 일들을 다 잊었지만,
오늘, 온 세상은 내가 쫓아낸
그분이 평화로 인도하고 계시다.

사관의 주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박대하게 되다니,
나의 기구함이여,
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우리는 늘 지나치고 나서 가슴을 찡니다. 사관 주인의 탄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 봉사를 설명한 예언자 모사이야 말씀과(모사 이아서 2:17 참조) 가장 작은 이웃 하나에 대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로 비유한 마태복음의 가르침(마태복음 25:40-46 참조)을 다시 마음속에 정리하고 성탄을 기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거듭나기로 모두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의 유산" 복음 교리반 보충 자료 배부

대관장단은 교회가 **우리의 유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라는 새로운 책을 출판한다고 발표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대관장단은 전세계의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 교회의 역사와 유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소장하는 데도 손색이 없는 이 책은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를 공부하는 1997년도 복음 교리반 보충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우리의 유산은 각 회원의 가정에 한부씩 제공된다.

교회 봉사 위원회가 집필한 이 책은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 교회 및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개관에 관해서도 몇 개의 장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는 모든 회원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 부각되어 있다.

교회 교과 과정부 관리 책임자인 로널드 엘 나이튼 형제는 "교회의 회복 및 유타 주 초기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서부 이

동과 정착 등을 통해 현재의 우리와 같은 말일성도가 있게 하는 데 바탕이 된 원리와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헌납, 충실함, 인내, 소망 및 봉사와 같은 원리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고 있는 유산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유산 배부에 관해 발표한 서한과 더불어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 보충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복음 교리반 교사가 1997년 학습 과정을 진행하면서 구할 수 있는 보충 자료들을 알려 주고 있으며, 공과 시간에 이러한 자료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일정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우리의 유산, 회복된 진리,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비디오 발표 자료, 교회 잡지 및 집회소 도서 실과 복음 그림 패키지에 들어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해 동안 성도의 벗도 과거와 현재의 개척자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개척자들이 1847년에 처음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기사를 다루게 된다.

교회의 핵심 교과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시아 더블류 더글러스 형제의 설명에 따르면, 신간, 우리의 유산이 제작된 것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저술한 **회복된 진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복음 교리반 교재 제2과를 공부할 때 **회복된 진리** 제1장과 우리의 유산 1-4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글러스 형제는 모든 교과 과정 자료가 복음 교리반 공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복음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성인과 청소년과 어린이들 모두 주일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공과를 하는 동안은 같은 경전을 갖고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7년에는 교회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가족들이 함께 우리의 유산과 다른 자료들을 함께 공부한다면 서로 더욱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보다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발간되는 우리의 유산을 비롯해, 이러한 자료들은 배부 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조셉 비 위스린 장로 방한 지역 훈련 모임 및 노변의 모임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조셉 비 위스린 장로의 감리 하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한인상 서울 성전장,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와 고원용 장로, 박병국 한국 선교사 훈련원 원장 및 각 선교부장, 스테이크/지방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훈련 모임이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 이어서 16일 저녁에는 영동 스테이크 오론 와드에서 선교사와 회원 및 구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변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서회철 영동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노변의 모임에서는 서울 서 선교부의 엘 에스 스웨인 서교부장 부부와 북아시아 지역의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부부 및 조셉 비 위스린 장로 부부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경인 지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영동 스테이크 센터를 가득 메운 채 일부 선교사들은 연단 바닥에까지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

위스린 자매는 말씀에서 아담의 시대로부터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으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경전을 통하여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강조했다.

위스린 장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종으로서 한국에 와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을 기

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하고, 살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영성을 키우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천지 창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이미 창조되었으며 매일의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 후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됨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은 미리 계획되고 이루어지며 보고된다고 말씀했다.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베드로, 사도 바울 등 초기 십이사도와 교회 초기 회원들은 모두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음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희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훌륭한 왕국을 건설하려면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변의 밤을 마친 조셉 비 위스린 장로는 17일 서울 성전에서의 의식을 마친 후 18일 오전 다음 방문지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다.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과의 노년의 모임



△ 좌로부터: 한국을 방문해서 노년의 모임을 가진 엘레인 엘 잭 자매(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지난 10월 27일 오후 7시 신당 와드에서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와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인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가 함께 한 가운데 노년의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마침 수원 스테이크 대회 감리차 한국에 방문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와 한국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 고원용 장로 및 한인상 서울 성전장을 비롯한 경인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상호부조회, 청년회, 초등학교 협회 역원 및 회원 구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엘레인 엘 잭 회장은 자신이 지난 6년 반 동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상호부조회의 사명과 원리에 대하여 말씀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는 두 가지 원리를 가르치며 실천하는데 첫번째 원리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모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과 자선의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성약의 원리인데 성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매들은 가정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며, "너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는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치게 나아가야"(니과이서 31:20)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등단한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는 속이 비어 있는 캔과 속에 내용물이 담겨 있는 캔을 한 손으로 힘을 주어 쥔 때, 속이 비어 있는 캔은 쉽게 찌그러지지만 속에 내용물이 담겨 있는 캔은 전혀 찌그러지지 않음을 시연하면서 우리가 우리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을 영의 힘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어떠한 압력으로부러도 찌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참석한 청년들을 모두 일어서게 한 후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부모, 청년회 고문, 신권 지도자들이 곁에 있으며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며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주님이 곁에 있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의 내면을 힘으로 채우는 방법으로 서기도와 경전 읽기를 열심히 하도록 권고했다.

브라운 장로는 평의회의 협의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신권 지도자는 가정과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매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야 하며, 와드/지부에서 자매들은 평의회에서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의 모임에 이어 역원 훈련 모임이 상호부조회는 엘레인 엘 잭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청년회는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초등학교 협회는 캐롤 브라운 자매의 인도로 분반하여 진행되었다. □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제1회 작품 전시회가 스테이크 센터인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평소 자매들이 상호부조회 모임과 가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연마한 솜씨로 제작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였는데, 신당 와드 상호부조회에서는 십자수를, 화양 와드 상호부조회에서는 반진고리를 함께 만들어 출품해서 많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삼청 와드의 서인석 자매는 봄과 가을을 주제로 한 꽃꽂이를, 청운 와드의 박은정 자매는 뽕꽃, 지점도, 데코파주를, 신당 와드의 김정희 자매는 직접 만든 웨딩 드레스, 케이크, 드라이 플라워 등을 출품해 전문가적인 솜씨를 보여 주어 관람한 많은 회원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자매들의 숨은 솜씨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재능을 발전시키고 자매애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시간들이 되었다. (김화자)



△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솜씨 자랑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26일에 동대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교리와 성약 60편 13절 "보라, 저들은 악인의 회중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자라.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곧 너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알리지 아니하려고 자기 재능을 숨겨 두지 말라"를 주제로 그동안 갖고 있던 재능을 발표하는 솜씨 자랑과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푸짐한 바자회를 열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자매들과 많은 형제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박 공예, 손뜨개 등의 훌륭한 다양한 자매들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 모임을 통해서 상호부조회 자매들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대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앞으로 이 모임을 이웃도 함께 참여하는 보다 향상된 모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삼자)

이문 지부 노변의 모임

지난 10월 26일 저녁 이문 지부에서는 한인상 서울 성전장을 초대한 가운데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한인상 성전장은 말씀을 통해 "좋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권고하며, "우리는 자신의 좋은 성품을 무한히 발전시키는 데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매일 경전을 읽고 상고하여야 하며, 특히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와 기도로 영을 얻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동 스테이크에서 특별히 초대된 한상인 형제는 "거룩한 성"을 독창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었다.

이번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이문 지부의 회원들에게는 훌륭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최대봉)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체육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지난 10월 3일 의정부 중앙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전날까지도 비가 왔으나 오히려 이날은 전형적인 시원한 가을 날씨로 체육 대회를 하기에 적절한 날씨가 되었다.

서울 선교부 소속인 동두천 지부 회원들을 포함하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백

팀으로 나뉘어 열띤 응원과 더불어 축구, 발야구, 씨름, 기네스 북 도전, 장애물 경주 등의 종목이 진행되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씨름에서는 회원과 신권 지도자 간, 부부 간, 시누 올케 등이 대결하여 평소의 앙금(?)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청팀 소속의 장위 지부는 열렬한 응원으로 대회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계속된 이 대회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하는 줄다리기를 통해 서로의 협동심을 자랑하는 가운데 모임을 마쳤다. (박찬식)



△ 서울 동 스테이크 체육 대회

경전 경시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제1회 경전 경시 대회가 지난 10월 13일 스테이크 센터인 미아 와드에 개최되었다. 매년 2회씩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경전 경시 대회는 있었지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경시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원에게 경전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된 이번 모임에서는 1부에서 최현철 형제가 '물문경 기록자의 흐름'에 관해서, 김영식 형제는 '고대 미대륙의 문화 유산과 니파이인의 관계'에 관해서, 도봉 와드의 배상기 감독은 '물문경은 참된 교회의 표적인가?'에 관하여, 그리고 미아 와드의 이형구 감독은 '물문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관하여 각각 연구 발표를 하였으며, 최동일 형제가 준비한 물문경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경전 경시 대회와 암송 대회



△ 서울 동 스테이크 경전 경시 대회

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위해 스테이크에서는 미리 예상 문제 80문항을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했으며, 회원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복음 교리반에서 예상 문제를 공부하고 암송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여 왔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변동 와드의 정선희 자매가 아차상에는 동두천 지부의 김주희 자매가 차지했으며, 암송 대회 1위는 고동 평의원인 최동일 형제, 2위는 미아 와드의 이형구 감독, 변동 와드의 강현석 형제가, 퀴즈 대회 1위는 장위 지부의 임정희 자매와 김선영 자매가, 2위는 변동 와드의 강현구 형제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회원들이 경전을 좀더 친숙히 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내년에 교리와 성약을 교재로 다시 이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찬식)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및 알뜰 물품 교환이 지난 10월 12일 스테이크 센터인 미아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전시회에는 특별히 앞치마, 가방, 아기 털모자, 지점토를 이용한 시계, 휴지통, 자석 칼라믹스, 보석함, 서류 영수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포켓 등 재 활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특히 홈패션 강사인 동두천 지부 동영애 자매의 바느질 솜씨와 변동 와드의 정선희 자매의 초상화 솜씨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활동을 하며 모임을 마쳤다. (박찬식)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및 재능 경연 대회

지난 10월 12일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및 재능 경연 대회가 개최되었다.

1부 말씀 순서에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허민자 자매는 가사 모임의 목적은 현재와 내세에서 가정을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제2보좌인 임영옥 자매는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김영근 부장은 작품 전시회가 사랑과 우정의 모임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했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육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발전하여야 함을 권고하였다.

작품 전시 및 음식 판매를 진행한 2부에서는 김밥, 야채 부추전, 오징어 회 덮밥, 족발, 녹두 부침, 떡볶이, 구절판 등 와드, 지부 별로 준비한 음식을 판매하여 참석한 성도들에게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놀라울 만한 솜씨를 보인 양재물과 수예물 등은 말일 성도 여성의 뛰어난 재능을 알려 주었다.

예년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았던 3부에서는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가족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일 깎기와 장갑 만들기, 냄비 집게와 컵 받침 만들기 등 와드, 지부의 화합의 장이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아름다운 우리집"은 보기만 해도 정겨운 모습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수예품의 완성을



△ 서울 북 스테이크 작품 전시회 및 재능 경연 대회에서 장갑을 만드는 상호부조회 자매들

경험한 자매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에 스스로 놀랐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가정 안에서 충실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영원한 가족의 힘을 인식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었다. (윤복순)

서울 영동 스테이크

1996년도 후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

1996년도 후반기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19-20일 양일간 영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피네가 장로는 '어떻게 하면 성찬식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32%에 불과했던 성찬식 참석률을 98%로 끌어올렸던 아리조나 메이슨 스테이크 제4와드의 성공 사례를 전한 뒤 각 와드·지부별 즉석 협의 평의회를 제안하여 스스로 성찬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협의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혼자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역원들이 신앙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어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남용 부장과 분당 지부의 손선옥 자매, 천호 와드의 강신민 형제,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 김종열 장로가 각각의 간증을 전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작고 조용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했으며 이어서 서울 서 선교부의 스웨인 선교부장, 오륜 와드의 조성자 자매, 영동 와드의 조준상 형제, 최근 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김기용 축복사의 간증을 들었다. 한인상 서울 성전장은 성전 봉사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없는 듯이 봉사하고, 가장 적게 말하고, 가장 조용한 동작으로, 정확하고도 온전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성전 봉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에 대해 이

야기하며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해서 말씀했다.

피네가 장로는 쌍둥이 형과 함께 젖은 행동을 했을 때 천둥 번개와 같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폭풍우와도 같았으며, 반면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속삭이듯 조용한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피네가 장로도 그런 어머니를 더 좋아했다고 회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가족이 또한 그 계획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된 이번 대회는 633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번 대회에서 오륜 와드의 황광범 형제, 한선교 형제, 잠실 와드의 유장철 형제가 대제사에, 오륜 와드의 조중환, 영동 와드의 이영문, 김철환, 이상영, 분당 지부의 박용민, 신장지부의 손준용, 김현민, 이형주 형제가 각각 장로에 성임되었다. (고천석)

서울 서 스테이크

1996년 후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지난 10월 12-13일 양일간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3)를 주제로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신림 와드의 최창순 감독, 사당 와드의 길윤석 감독,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윤세영 부장이 각각 가정복음, 물론경, 성전에 대해 말씀했으며, 이어서 등단한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는데 겸손한 태도로 봉사해야 하며, 겸손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스테이크 보이스카우트(소년단)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진행된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백승숙 자매가 귀환 선교사로서 영감에 찬 간증을 전해 주었으며, 봉천 와드의 서훈 감독이 교회의 회복에 관하여,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용 부장은 순종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침례시에 맺은 성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였으며,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행복의 요건으로 첫째, 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 것, 둘째, 자연을 가까이 두고 지낼 것, 셋째,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 필요한데, 진정한 말일성도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가진 백성들로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귀환 선교사인 최연숙 자매는 감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간증했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은 오명신 자매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간증을 전해 주었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윤세영 부장은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었다. 또한 서울 서 선교부의 스웨인 선교부장은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전날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여 자리를 함께 한 한인상 서울 성전장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을 가득 채우고, 실천할 것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합창단들이 특별 찬송을 준비하여 대회가 더욱 영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태열)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대회와 결하여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을 비롯하여 조화 꽃꽂이, 병풍, 도예, 한복, 자수, 나염, 사진, 음식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다.

전시회를 마친 후 가진 시상식에서 단체 수상은 일 모임을 통해서 모든 자매들이 참여하여 조화 꽃꽂이 작품을 출품한 낙성대 와드가, 차상은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든 신림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개인상은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수놓아 만든 자수 병풍을 출품한 봉천 와드의 안영숙 자매가 차지했다.

이 가을의 훌륭한 결실처럼 훌륭한 재능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출품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작품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모임이었다. (오명신)



△ 서울 서 스테이크 작품 전시회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원 선교 사업

96년은 회원 선교 사업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온 강서 스테이크 선교부는 전반기에 이어 지난 10월 27일에 스테이크 모든 회원이 전도지와 물문경을 갖고 길 전도 및 가가호호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에게는 낯선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을 건넨다는 것조차도 두려움으로 다가왔으나, 이 일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때 두려움은 용기로 변하였다.

이날 모임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었지만, 오히려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좇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용기와 간증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연중 행사로 벌이고 있는 이러한 활동과 회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애경)

수원 스테이크

1996년 후반기 수원 스테이크 대회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후반기 수원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26-27일 양일간 엘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 하에 수원 스테이크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은 말일에 주님을 예비할 준비로서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권고했고, 브라운 장로는 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강화시켜 사회와 국가가 강화되며 한국을 구원할 수 있는 충실한 말일성도가 되도록 했다고 말씀했으며, 오세운 형제는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의 축복에 관해서 간증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조강제 부장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영적·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이해선 자매는 기도에 관해, 권대업 형제는 선교 사업에 관해 그리고 브라운 장로는 가정의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회의 성공보다는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332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일요일 총회에서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은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영희 부장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 서울 서 선교부의 스웨인 선교부장은 회원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관해 말했다. 또한 황종원 형제의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가정의 밤의 중요성과 이에 대

한 간증을 전해 주었으며, 평택 지부의 박상훈 형제는 물론경을 매일 읽을 때의 영적인 경험을 전해 주었고, 새로운 축복사로 부름 받은 도길희 형제는 축복사의 부름은 신앙이 깨어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감리자인 브라운 장로는 회원들이 가정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첫째, 복음의 원리를 실천할 것,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 셋째, 가정복음 교육을 충실히 하여 가정을 강화할 것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주었다.

대회가 끝난 후 가진 평가 모임에서 브라운 장로는 모임을 잘 준비한 것에 관해서 신권 지도자 및 스테이크 역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하여 느낀 복음 원리를 실천하는 방편에 대한 의견과 간증을 나누었다.

이번 대회에서 울진 와드의 임승근 형제, 평택 지부의 강재성 형제가 대제사로 울진 와드의 김용기, 김형철 형제는 장로에 성임되었으며, 현악 연주가 곁들인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은 대회를 더욱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상호)



△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고 함께 모인 브라운 장로 (맨 앞줄 가운데)와 수원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들

인천 스테이크

1996년 하반기 인천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2~3일 양일간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1996년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만수 와드의 청남인 이창현 형제는 '청남으로서 선교 사업을 준비함'을 주제로 말씀하였고, 귀환 선교사인 답동 와드의 김대식 형제는 선교 사업을 통해 얻은 간증을 전해 주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창호 부장은 모든 회원이 적극적인 말일성도의 자세를 갖도록 권고하였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허병석 부장은 성공적인 회원 선교 사업을 위한 신권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에 관해 말했다.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교리와 성약 4편 2~5절의 말씀을 인용, 나 혼자만이 훌륭하다 하여 승영하는 것이 아니며 봉사과 회생으로 가족과 회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초청 연사인 박남수 형제는 성전 의식을 통해 끊임없이 빛과 지식을 받아 의롭게 발전하여 복천년 아침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씀했으며, 이용상 축복사는 이생 뿐만 아니라 내세의 우리 생을 위해 구세주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라고 권고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허병석 부장은 사랑과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걱정과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믿음의 시작은 걱정과 끝이라고 말씀했으며, 귀환 선교사인 답동 와드의 이선미 자매는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야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간증했다. 또한 주안 와드의 이강주 자매, 서울 서 선교부의 스웨인 선교부장, 초대 인천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허채 형제 등도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었으며, 한인상 서울 성전장은 쉬지 않고 경전을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살 때 참 시온의 스테이크가 된다고 말했다.

대회를 감리한 박동화 부장은 교리와 성약 39편 17~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현세에서의 끊임없는 신앙 생활은 결국 내세에서의 확실한 축복을 보장 받는 길이라며 성도들의 변치 않는 복음 생활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2층 예배실이 부족하여 활동실 무대 위까지 의자를 배치할 정도로 많은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대제사 2명과 장로 3명이 새롭게 성임되었다. (이성렬)



△ 대회가 끝나고 함께 모인 인천 스테이크 역원들

인천 스테이크 대축제

지난 10월 26일 저녁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가을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새 슬며시 가고 있는 저녁을 맞아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센터의 운동장 준공을 축하하고 11월 2~3일 양일간 개최될 96년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준비하는 뜻에서 「'96 인천 스테이크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전 지역 대표였으며 현재 서울 성전장단 제1보좌인 최옥환 장로의 말씀과 이진희 자매의 소프라노 독창, 온누리 합창단인 정대판 형제 부부의 듀엣 등으로 영적인 순서를 가졌고, 2부에서는 상호부조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야외로 나가 120년이 넘는 은행 나무 옆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대축제를 가졌다.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 부부와 최옥환 장로 부부등 신권 지도자들의 테이프 커팅이 있은 후 대축제 개최 선언에 이어 광파르가 울리고 하늘 높이 수십 발의 폭죽이 터졌다. 이어서 다 함께 참여하는 마카레나 춤을 추면서 자리를 정리한 후, 복음 성가 중창, 꼭두각시 춤, 피아노 독주, 콩트 등을 비롯한 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특히, 쌀쌀한 저녁 날씨임에도 이번 축제

를 위해 출연해 준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의 김혜진 자매의 소프라노 독창과 온누리 합창단의 합창은 모임을 더욱 빛내 주었다. 축제 중간에 있었던 주안, 만수 와드의 청남들이 추었던 「트위스트 킹」춤은 신세대 회원들은 물론 성인 회원들까지도 몸을 들썩거리게 해 줄 만큼 경쾌했으며, 구도자를 소개하면서 무대 위에 마련된 환영의 폭죽이 터질 때에는 회원들과 구도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온누리 합창 단원 및 여러 회원들은 한결같이 스테이크 단위로는 처음 보는 규모의 축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비교적 추운 날씨임에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많은 회원들은 모두가 복음 가운데 한 형제·자매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말일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렸다. (이성렬)



△ '96 인천 스테이크 축제

부평 와드 제2회 가을 음악회

지난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감독: 양홍규)에서는 제2회 부평 와드 가을 음악회가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음악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평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재능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평 와드를 시온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먼저 '96년 국제 청소년 문화 협회 주최 음악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양현아 자매

(초등학교 5학년)가 "여명의 눈동자"와 "베토벤 소나타 1번" 피아노 독주를 시작으로 모두 10팀이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기타, 첼로, 플루트 연주와 중창, 독창 등의 순서가 있었다. 두 번째로 계산 와드의 몰러(MOLLER) 장로가 "CANARANIOUS"와 "HELANUS"의 기타 독주를, 이현자 자매와 김양동 형제가 이중창으로 "그 아무도"를 불렀으며, 다음으로 이수원 형제(중학교 2학년)가 클라리넷으로 "대부 주제가"를 연주했으며 앙코르를 받은 이형제는 "마이 웨이(MY WAY)"를 담례로 연주하였다. 이어서 허병석, 김창호 형제가 중창으로 "사랑은 아름다워라"를, 김보희 (초등학교 6학년)자매는 피아노 독주로 쇼팽곡 "GRADE VALSE BRILLANTE"를, 이진희 자매 (독신)는 독창으로 이태리 가곡 "CARONOME"를 연주했으며, 이연희 자매 (고등학교 2학년)는 플루트 연주로 "솔베이지의 노래"를, 배애숙 자매는 첼로 독주로 "JEAN BAPTISTEBREVAL의 SONATA"를 연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대 손님으로 온 이경원 자매와 송승희 자매가 중창으로 "렛 잇 비 미 (LET IT BE ME)"를 그리고 이경원 자매가 "그리운 금강산"을 독창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제2회 부평 와드 가을 음악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노래는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외인의 노래는 곧 나의 기도니라. 나는 너희 머리 위에 축복하여 응답하리라."는 경전 구절처럼 이번 "가을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음악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 부평 와드 제2회 가을 음악회

드리고 사랑을 느꼈다.

특히 이번 모임은 모든 성도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무대 장식을 매우 아름답게 해서 가을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음악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주었다. (윤기포)

청주 스테이크

1996년 하반기 청주 스테이크 대회

1996년 하반기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12-13일 황충렬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종구 부장은 세속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마음을 달리함에 관하여 말씀하였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송윤현 부장은 옛날과 오늘날의 제물의 다른 점들을 비교하며 신앙의 분량대로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 와드의 이상일 감독은 이웃에게 봉사하고 예수님의 모범에 따를 것에 관하여, 조영환 축복사는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대전 선교부의 홍병식 선교부장은 대전 선교부 내에서 미약하고 단순한 선교사들에 의해 놀라운 개종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다.

또한 황로젠 자매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하여 간증했으며, 감리자인 황충렬 스테이크 부장은 부활절 아침, 불치병에 걸린 필립이라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빈 계란 껍질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채워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선생님이 주신 그 계란 껍질을 그대로 가져 왔지만 '선생

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라고 한 간증을 전해 주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는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었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배미일)

대구 스테이크

가족 음악 축제 한마당

지난 10월 12일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에서 열린 가족 음악회는 오후에 있었던 상호부조회 바자회와 함께 신선한 가을 밤을 풍성하게 수놓았다. 복음안의 충실한 말일성도 가족들이 가정의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영적인 속삭임을 더해 주었다.

1부 우리 가족 만세는 총 아홉 가정이 참여하여 찬송가, 기타 반주와 함께 한 가요, 율동까지 발표하는 기량을 보여 주었고, 2부 가을 저녁의 추억 시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 바이올린 연주, 특별 출연의 요들, 하모니카 연주에 회중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행복의 근원인 가정의 소중과 더불어 시온의 백성이 음악을 통하여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김우경)

▽ 대구 스테이크 가족 음악 축제



박문석 형제 CD 롬 졸업 작품집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시민 회관 전시실에서는 경북 실업 전문 대학 사진 영상과 졸업 작품 전시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만든 뮤직 비디오,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시사회와 사진 전시회가 열린 이번 대회에서 특히 관람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졸업 작품을 CD롬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독특하고 시대에 발맞추는 기획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말일성도인 박문석 형제였다.

▽ 졸업 작품 전시회를 기획한 박문석 형제가 대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각 97'로 이름 지워진 이 CD 롬 작품집에는 작품 사진은 물론 비디오 작품 동화상, 졸업생들의 육성으로 된 간단한 자기 소개 및 작품 해설, 과 홍보 비디오 영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졸업 전시 위원장으로 몇 달 동안 수고한 박 형제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고, 전시회에 참석한 내빈 및 교수, 학부모, 학생들의 갈채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박문석 형제는 대구 스테이크의 회원으로 스테이크 집행 서기로 봉사하다 최근에 해임되었으며,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1995년에는 한국 사진 대전에서 입선을 하기도 한 박 형제는, 장차 다큐멘터리를 더 공부할 계획이며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될 계획이다. (남태한)

부산 스테이크

1996년 후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

지난 10월 13일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을 주제로 양기옥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합창단의 "주는 나의 빛"을 들은 후 온천 와드의 정미경 자매가 성전 의식을 통한 간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음을 말씀했고, 온천 와드의 박길조 자매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강조하며 진정된 회개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거듭 나야 한다고 말했다. 연산 와드 정희모 감독은 수년간 감독으로서의 봉사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망설이지 않고 교회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씀했고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이무정 자매는 "좋은 말씨를 사용함"에 관하여 말씀하며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축복사는 "인간의 영혼"이란 주제로 "너희는 영적으로 거듭났느냐?"(엘마서 5:14)를 인용하며 영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관해 말씀했으며, 모든 회중이 기립하여 151장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를 힘차게 부른 후에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전영준 부장은 "성도로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므로 타인을 사랑하고, 지니고 있는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생각과 언동을 할 것을 권고했다. 감리자인 양기옥 스테이크 부장은 남을 헐뜯는 것에 관해 말씀하면서 교회 성도로서 질투, 시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남에 대해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고 친절하면서도 온화한 말씨를 나누자고 권고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제1보좌에 김경숙 자매, 제2보좌에 이정희 자매,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에 김미숙 자매, 독신의장단 상호부조회 대표에 정미경 자매, 독신 서기에 권희영 자매가 새로운 스테이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대제사에

수정 와드의 전영태 형제, 온천 와드의 한중완 형제가, 장로 신권에 수정 와드의 김창현 형제, 연산 와드의 최완재 형제, 방어진 와드의 전신배 형제가 각각 성임되었다. (이희숙)

부산 신학 연구원 바운티풀 축제

1996년 11월 2일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에서는 부산 신학 연구원 바운티풀 축제가 열렸다. 일반적인 여러 축제와는 달리 독신 및 기혼 회원들이 함께 준비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던 이번 모임은 1부에 토론회를 가졌는데 25세 이하의 연령의 회원들은 대신 지부 김형기 형제의 사회로, 25세 이상의 연령의 회원들은 과정 지부 박광훈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 참여하였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는 동안 여러 회원들의 생각과 관심 분야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모임이었고, 2부 순서에서는 연산 와드 송경림 자매의 사회로 가벼운 포크 댄스를 시작으로 무도회를 가졌는데, 함께 참석한 부부들이 다정하게 춤을 추는 모습과 신권 지도자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는 화기 애매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김형기 형제, 구순덕 자매, 신영화 자매, 유연동 형제가 "스페셜 댄스"를 한 달 동안 준비하여 시범을 보여 주었다.

아쉬운 듯 모임이 끝난 뒤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기혼, 독신 성인, 신권 지도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신학 연구원에서 경전 공부를 하던 뜨거운 열기 못지 않게 아름답게 보였다. (이희숙)



△ 부산 신학 연구원 바운티풀 축제 모습

전주 스테이크

독신 성인 가을 무도회

지난 10월 26일 전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독신들을 위한 가을 무도회가 열렸다. 지난 여름 청년 대회를 통해 다져진 스테이크 독신 성인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무도회는 35명 정도 참석하는 모임이었지만 참석자 모두가 구상과 기획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개회 및 환영사에 이어 전주 지부의 황인상 형제가 서로간에 친밀감을 더해 주는 레크레이션 진행했으며, 이철오 형제, 황해순 자매 부부의 왈츠와 문종민 형제, 박혜정 자매의 차차차 시범이 있었다.

이어서 함께 춤을 추며 참여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에는 어느 무도회에서와는 다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많지는 않은 인원이지만 서로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모임이었다. (남경희)

상호부조회

경전 퀴즈 대회 및 체육 대회

지난 11월 2일 전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에서는 스테이크 내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 퀴즈 대회와 체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상호부조회 담당 고등 평의원인 이효종 형제가 출제한 경전 퀴즈 대회에서는 물론 경 엘마서를 범위로 경전을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문제를 푸는 동안 항상 경전을 생활에 적용할 것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다.

경전 퀴즈 대회가 끝난 후 가진 체육 대회에서는 롱 주머니 던지기, 단체 줄넘기, 기차 놀이, 고리 넣기, 공기 놀이 등 다양한 민속 놀이를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를 가졌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된 시상식에서 경전 퀴즈 대회 1등은 남원 지부의 김미자 자매가, 2등 역시 남원 지부의 김명로 자매가, 3등은

노송 와드의 성은숙 자매가 차지했으며, 체육 대회의 종합 우승은 김제 지부가 차지했다. (문순옥)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과 표준을 키워 가고 보다 훌륭한 형제, 자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 '이성 교재 및 표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테이크 활동실에서 청소년 관련 신권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다.

지도자 소개, 특별 음악, 이성 교재 및 순결의 법에 관한 토론, 영적 활동 및 다과 순으로 이어진 모임은 특별히 이성 교재 및 순결의 법에 관한 토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광주 스테이크 청남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강남현 형제와 전주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철오 부장이 알기 쉽게 이성 교재와 순결에 관해서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에서 주신 계명과 이 혼란한 시대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표준을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전주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이번 모임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의의 표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황인랑)

광주 스테이크

여성 대회

지난 10월 26일 오후 7시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와 본부 청년회 회장단 보좌인 버지니아 에이지 피어스 사매가 방문한 가운데 '여성 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의 감리와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광주 스테이크, 순천 지방부의 만12세 이상의 자매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엘레인 엘 잭 자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리에 대해 말씀했는데 첫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보낸 하인에게 친절히 대한 것으로 들면서 친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을 강조했고 특히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둘째로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켜 성약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했다.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는 핑클리 대관장님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전하면서 니파이일서 16장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니파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잘 해결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우리는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여성 대회가 끝난 후에는 각 보조 조직이 분반하여 지도자 훈련 모임을 가졌는데, 상호부조회 훈련을 담당한 잭 자매는 상호부조회 목적과 목표에 대해 말한 후 "일요일의 공과 시간과 방문 교사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온전히 실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회장단은 매달 감독님과 접견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청녀회 훈련에서 피어스 자매는 회장단은 "청녀에게 올바른 지침을 강조해야 한다. 청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 때 도와줄 수 있으며 그것은 정규적인 청녀 접견과 개인 발전기록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했다.

초등협회 훈련을 담당한 캐롤 브라운 자매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초등협회에서 배운 노래들이다."라며 초등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전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경전을 위도록 격려해야 하며 공과는 정직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훈련했다.

회원들은 세 자매님의 방문과 훈련으로 진정된 말일성도 여성상을 보았고 격려와 사랑이 담긴 훈련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박유미)

1996년 후반기 광주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2일 3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교리와 성약 14편 7절 말씀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를 주제로 하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강광진 형제는 '선교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했고,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광윤 형제는 "우리의 신권은 기적을 동반하며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말고 입을 열어야 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안정을 찾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했으며,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신권 지도자는 경전을 읽고, 표준대로 생활하자"고 권고했다.

이어 열린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김광윤 부장은 "그리스도 안에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다"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더 큰 능력을 얻자"고 말씀했고, 침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종찬, 안선영 부부는 개종 이야기를 전하면서 "앞으로 가족 인봉에 대한 소망을 키워 나갈 것"을 다짐했다. 9월에 귀환한 안혜정 자매는 선교 사업의 경험과 간증을 전했고 금성 지부의 이성남 형제는 "우리 모두가 대관장님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말씀했다. 고등평의원인 최훈 형제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 연사인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올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면 그 길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사소한 일은 극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믿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견디기 바란다."고 말씀했다.

포근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일요일 총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중배 부장은 "참고 견디는 일에는 슬픔과 역경도 있지만 기쁨과 행복도 포함된다. 이 교회를 통해 행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고, 송정 와드의 강숙희 자매는 청녀 때 쓴 개인 발전 기록부와 선교 사업 때 남긴 충실한 기록 등이 잘 견딜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풍향 와드의 김연순 자매는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했고,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애국심과 국민성이 합쳐져야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데 이 교회야말로 애국심과 국민성이 합쳐진 곳이다."라며 끝까지 견디는 마음씨를 가다듬어 주기를 당부했다. 회중 찬송에 이어 송정 와드의 문호영 형제는 개종하면서 얻은 간증을 전했고, 목포 와드의 김정업 자매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침례 받은 지 1년이 된 날 너무 기뻐다."고 간증했다. 임종하 부장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신앙이란 첫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인격, 완전함과 속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 셋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지식을 갖는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 충실함으로 견딜 것과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꼭 경전을 위도록 당부했다.

광주 스테이크 성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격려 받으며 자신을 가다듬고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나미)



△ 광주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

상호부조회 역원 훈련 모임

지난 10월 19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상호부조회 역원 훈련 모임과 화초 전시회 및 바자회가 열렸다.

역원 훈련 모임에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끝까지 견디는 데 대해 말씀했다.

상호부교회 회장인 조길자 자매는 엘레인 엘 책 본부 상호부교회 회장 말씀인 '희락의 기쁨'을 인용하여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교회 모토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가지 질문 "무엇이 필요하십니까?"와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에 대해 말씀했는데, 첫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름이고 이 기름은 우리의 영성이며 간증이며 영적인 자립, 영원한 관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에 우리 자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기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복음 공부를 강조함, 둘째, 기도의 힘으로 강화시킴, 셋째, 주님의 영감에 의지함, 넷째, 계명대로 생활하도록 강조함, 다섯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신권 지도자와 함께 일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고 답하면서 "자매들에게 영적인 준비성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주님의 영이 풍성히 임재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자매들이 복음의 결속력으로 신뢰와 우정, 단합된 힘을 쌓을 수 있도록 상호부교회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훈련을 마치고 나서 자매들이 지난 1년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가꾼 화초를 감상했고, 이어 열린 바자회에서는 각 자매들이 가정에서 가져 온 잉여 물품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 서로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박유미)

천안 지방부

1996년 하반기 천안 지방부 대회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로 1996년도 하반기 천안 지방부 대회가 개최되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한 이

번 대회의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성도들이 이웃과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고 막연히 권고하기 보다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과 흥미의 소재를 소개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브라운 장로는 우리의 교회 정책과 신권은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이며 우리는 이 신권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의로워져서 (앨마서 10:22, 23 참조) 하늘로부터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고 가정과 세상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줄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브라운 장로는 말보다 기도를 더 먼저 배우게 되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욱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성전을 방문하고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 이정은 지방부장은 니파이가 배를 만든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달랐듯이 (니파이일서 18:2)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배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부장의 제1보좌인 이광열 형제는 지혜에 대하여,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작은 일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말일성도 문화에 대해 말했다. 또한 홍성 지부의 김정임 자매는 물문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날마다 읽음으로써 얻은 간증을 전하면서 혹 물문경을 잘 읽지 않는 회원들이 있다면 들어라며 "눈 뵈다 뭐합니까?"라고 말해 듣는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장로는 낚시편을 가져 오라고 명을 받은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 중 레이먼과 레뮤엘이 "주님께서 레이벤을 우리 손에 맡기시겠다 참이 어찌 기하랴"(니파이일서 3:29-31)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 관리, 학업, 사업, 주님의 일 등 상징적인 낚시편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생식의 능력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며 순결의 법을 지킬 것과 어린이는 젖은 콘크리트와 같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영적

으로 잘 성형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였으며, 아내의 올바른 제안에 대해 남편은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화를 내지 말고" 귀기울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더하시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진석)

부산 서 지방부

가을 운동회

지난 10월 3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김해시에 있는 가야 랜드내 잔디 구장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회원간의 우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지방부내의 각 지부가 한데 모여 열린 경쟁을 하였다.

염호경 지방부장의 환영 인사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대회는 대신·괴정 지부가 청팀, 구포·영도·김해가 백팀이 되어 배구, 축구, 씨름, 지네 걸음, 줄다리기, 릴레이 등의 종목이 진행되었다. 특히, 씨름에서는 자매들도 선수로 출전해 기량을 과시했고, 지네 걸음에서는 회원들의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대회 시작 때와 중간에 펼쳐진 치어 리더들의 힘찬 율동이었다. 이날 모임을 위해 한달간 연습을 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준비한 여섯 명의 형제·자매들은 경기장 분위기를 흥겹게 도와주었다.

이번 모임은 오랜만에 지방부 회원들이 일상을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었다. (강명근) □



△ 부산 서 지방부 가을 운동회

전국 최다 성도의 벅 구독, 대구 스테이크 말씀 경연 대회

시온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1996년 10월 20일 오후 4-6시 시온의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성도의 벅을 읽고 체험한 간증과 말씀을 주제로 말씀 경연 대회를 가졌다. 대구 시내 4개 조직은 수성 와드에서, 북부 지역 4개 조직은 9월 1일 새롭게 조직된 상주 지부에서, 동부 지역은 포항 지부에서 와드, 지부별 4명씩 한 지역별 12-16명의 연사를 초대했다. 연사는 초등협회, 청소년, 상호부조회, 대신권 소유자 등 전조직에서 선발되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원은 3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감리와 환영 인사, 심사 위원으로 수고하였다.

말씀 경연 대회인지만, 그 영적인 열기와 분위기는 대단히 고조되었다. 대구 시내 지역의 반응은 '마치 연차 대회 같더라'며 모두 흡족해 했고, 북부 지역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연사 전원 1등으로 정해 버렸고,

동부 지역에서는 오랜만에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그 열기와 말씀에 취해 영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모임이었다고 전했다.

말씀 경연 대회의 배경에는 지난 8월 말일자로 대구 스테이크 성도의 벅 정기 구독수가 752부를 돌파함으로써 회원들 자신이 좀더 효과적으로 성도의 벅을 빗살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기회에 한번 더 성도의 벅의 중요성을 전회원에게 환기시킬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많은 부수의 구독수를 달성하게 된 경위는 전임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배성수 부장이 "시온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자"라고 마음을 정하고 각 신권 지도자를 격려하

▽ 상주 지부 말씀 대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재현 자매



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에 교회 관리 본부에서의 효율적인 구독 캠페인과 잘 조화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12월에 지역에 계신 엄선된 연사를 초빙하여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는 성도의 벅을 폭 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 시온의 백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년의 밤을 개척할 계획이다. 이는 성도의 벅을 통해서도 회원 개개인의 새로운 영적 변화를 얻어낼 수 있고, 성도의 벅을 온 지상에 배포하여 선교 사업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활동 회원에게는 말씀 준비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하고 거듭나는 성찬식이 되는 것을 돕도록 하기에 좋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장신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하였다. (박문석, 주광영, 윤정찬)

참고로 8월말 현재 대구 스테이크 지역별 정기 구독자 수는 다음과 같다.

대구 시내 지역-수성, 중리, 대명/와드, 경산지부 : 447부
동부 지역-영천, 경주, 포항/지부 : 152부
북부 지역-구미, 김천, 안동, 상주/지부 : 153부
스테이크 전체 - 752부 □

말일성도 자화상

박점현 자매(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지부)

차가운 공기를 호흡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들어설 때 느껴지는 심적 부담감이 오늘따라 크게 느껴진다. 모두들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할 때, 나는 아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 곁을 향해 병원 문을 밀어야 한다. 오늘따라 병실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무거운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다.

중환자실의 한 침대 주변이 많은 기계들과 의료진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다. 오늘밤 무사히 보내길 기도했던 내 마음은 어떤 무게감이 짓눌려 온다.

침대의 주인공은 60세 가량의 아주머니로 교통사고로 실려 온 분이였다. 병실에 오실 때까지 맑은 정신이었는데 갑자기 무의식 상태에 빠졌고 각과의 의사들이 와서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있던 중이었다. 결국 정형 외과에서 환자를 돌보기로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처치를 시행했다. 한 때는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딸로서 생활했을 강한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계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연약한 호홉만 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살아 있는 생명체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삭막해져 버린 분위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오늘 이분을 위해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다.

담당 의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한 후 밤동안 환자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인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나머지는 신에게 맡길 뿐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박 간호사도 교회 다니시냐고 물으셨다.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을 그 분께 말씀드렸더니 "LDS!"라고 놀리시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라고 말씀하시며 다음 말을 덧붙였다. "내 친구 한 명이 그 교회에 다니는데, 아주 훌륭하고 겸손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모범을 보면서 그 교회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LDS라면 미국에선 이력서도 받지 않고 채용하던데, 한국인 LDS도 그래요?"라면서 안심이라도 하신 듯 병실

을 나가셨다.

나는 순간 우리 교회의 가치를 인정 받고 있음에 기쁘기도 했지만, 내 모습의 부족함이 무척이나 나를 숙연하게 했다. 나는 진정한 말일성도인가! 겸손, 사랑, 순종이라는 단어들을 내 가까이 끌어들이려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밤새 정성을 쏟은 의료인의 손길에도 아랑곳없이 그 환자는 그날 밤 이 세상을 떠났다. 떠나가는 환자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비는 짧은 기도밖에 없었다.

하루밤 동안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깨달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안식처의 평안이 느껴진다. 밝은 태양 빛에 눈이 부시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할 때이다. 삶의 무게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나를 인도할 것이기에 나의 기쁨은 크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항상 침묵하고 있는 하늘이지만 의미있는 무언의 단어들 나에게 외치고 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92기

(1996년 10월 14일 - 11월 1일)



〈성 명〉

김인숙 자매
민병연 장로
박봉선 자매
신 혁 장로
이남호 장로
이호인 장로
임산규 장로
정수진 자매
차현석 장로
홍지연 자매

〈출 신 지〉

영동 스테이크 성남 중앙 지부
청주 스테이크 석교 지부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인천 스테이크 옹현 와드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청주 스테이크 예성 지부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선 교 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대전 선교부
대전 선교부
부산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서울 서 선교부
대전 선교부

사진 설명:

앞줄 왼쪽부터: 김인숙, 홍지연, 박봉선, 정수진

뒷줄 왼쪽부터: 임산규, 이호인, 차현석, 이남호, 민병연, 신혁

감사의 말씀

한해 동안 저희 성도의 벼를 사랑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소식의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신 각 스테이크·지방부의 모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원고 모집 안내]

“교회 소식”을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지방부, 와드/지부의 특별한 행사, 회원 동정, 간증, 개종기, 시, 수필 등 다양한 기사를 접수합니다.

원고 접수처

주소: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빛 편집실 앞

TEL: 232-1441 / FAX: 235-3357

하이텔: ldschrch

(LDS 유모어)

어느 날 나는 교회 계보 사무실에서 나의 모계 혈통의 조상들에 대한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조상들의 이름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작성한 계보 기록을 뒤져 보았더니 남편의 부계 조상들 중에서 그 이름이 있었으며 나의 모계 조상들과 남편의 부계 조상이 서로 섞여 있었으며 중국에는 한 조상에게서 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 와서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 줬고 자녀들 역시 매우 놀라워 하는 눈치였다.

저녁 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녀석은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우리와 아버지 조상과는 서로 친척간이에요”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줄리아 넬슨 코리, 유타 주 세다시—